

【 해외금융뉴스: 중국 】

은감위, 엄격한 방카슈랑스 판매 질서 요구

□ 중국은행감독위원회(이하 은감위)는 은행창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직원 자격 조건과 판매 행위를 현재보다 엄격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은행의 보험대리업무 관리에 관한 통지’를 2월 24일 발표함.

- 은감위는 방카슈랑스 판매 직원과 일반창구 직원을 엄격히 분리하도록 하고, 방카슈랑스 판매 직원에 대한 자격관리를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
- 또한 상업은행은 창구 등급별 판매 가능한 보험상품을 지정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보험상품 판매권한을 위임받아 판매해야 하며, 이를 위해 투자형 보험상품 판매는 반드시 자산관리서비스 창구나 자산관리상담실을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이 법령은 보험상품 대리판매의 광고 관리를 강화하고 홍보 전단지과 같은 판매보조 자료에 대해서는 파일로 관리를 해야 하며, 판매보조 자료는 반드시 보험사의 본사 혹은 본사의 권한을 위임 받은 지사에서 일괄적으로 인쇄할 것을 명시하고 있음.

□ 아울러 이번 규정은 최근 심화되고 있는 보험사와 은행간의 협약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양측의 자정 노력을 요구하고 있음.

- 일부 은행들이 보험사에게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를 요구함으로써 보험사간 출혈 경쟁을 유발하거나,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니즈 파악 없이 보험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소비자 불만을 야기하고 있음.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상품 대리판매 계약시 보험사와 은행의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중국은행감독위원회 홈페이지, 화서도시보 2/25)